

제도 때문에 값 못내려... 남아도는 우유 어찌나

생산비·물가 반영 연동제 탓 재고 '눈덩이' 생산증가에 소비 부진... 낙농가 젖소 도축까지

소비 부진과 외국인 유제품 수입 등으로 원유가 남아돌고 있어 지역 낙농가가 울상을 짓고 있다. 전국적으로 우유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생산비와 소비자물가를 반영한 가격 책정 공식(원유가격연동제)에 따라 가격을 내릴 수도 없는 실정이다.

15일 한국낙농육우협회전남도지회 등에 따르면 유가공업체가 쓰고 남은 원유를 보관 목적으로 말린 분유 재고를 원유로 환산한 양은 올해 9월 기준, 26만2659t이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9월(18만7천664t)보다 40% 많은 양

이다. 분유 재고량은 지난해 11월에 2003년 이후 11년 만에 20만t을 넘고 나서 1년 가까이 매달 20만t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우유 재고가 겹잡을 수 없이 증가한 것은 2010~2011년 구제역 파동 이후 정부는 원유 생산량 증대 정책을 펼쳤고 유업계는 생산 농가에 증량 요청을 했는데 결국 2년 후 과잉 생산으로 이어졌다.

또 통상 겨울 날씨가 따뜻하면 젖소가 원유를 많이 생산하는데 2013년과 2014년 겨울이 비교적 따뜻해 집유량이 대폭 늘었다. 더구나 사료

값도 내려 원유 생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원유 생산량은 221만4000t으로 2013년(209만3000t)보다 5.8% 증가했다. 안정적인 국내 원유 생산량은 210만t 안팎이다.

생산량이 늘었지만 불황 등으로 소비도 부진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구당 우유 월평균 구매액은 2012년 2분기 1만4447원에서 올해 2분기 1만2088원으로 16.3% 줄었고, 같은 기간 월평균 구매량은 5.79kg에서 4.92kg로 15% 감소했다.

이에 낙농가에서는 원유 생산 감축에 들어갔다.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젖소 도태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달 전국 16개 낙농 조합도 국내에서 착유

중인 젖소 총 20만8000두의 1.8%인 3천800두를 자율적으로 도축하기로 결의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젖소 도축 두수는 5만1315두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7027두) 보다 38.6% 늘었다.

이 기간 원유 생산량은 166만3079t에서 164만6475t으로 1%(1만6604t) 줄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나주시지회 유동수 사무국장은 "소비가 생산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수입 치즈 등으로 전반적인 원유 소비가 줄고 있다"면서 "정부의 추가 지원책이나 대대적인 소비 촉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역 낙농가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에는 현재 350여 농가가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G20·APEC정상회의 잇따라 글로벌 정책공조 기대감 확대 박스권내 트레이딩 대응 필요

지난 주(9일~13일) KOSPI는 전주대비 2.9%가량 하락한 1973.29를 기록하며 마감했다. 주 초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와 OECD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영향으로 코스피는 2000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지수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으로 11월 한국은행 금통위와 읍선만기일에도 회복세를 보였다.

지난주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개인은 8200억 가량을 순매수,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4000억, 7100억가량을 순매도했다.

KOSPI 22개 업종 중 단 4개만이 상승했다. 보험, 제약, 바이오 업종 등이 상승했지만 증권, 전기가스업종이 큰 폭의 하락세를 연출했다.

전 세계증시도 이와 비슷한 흐름으로 MSCI 전세계지수는 전주대비 2%가량 하락한 모습으로 미국 S&P (-2.5%), 유로스톡600(-2%) 가량을 하회했다. 세계각국 또한 미국 금리인상 우려감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또 지난주 국제유가의 급락세는 지수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이었다. 반면, 중국상해지수는 중국의 IPO 재개소식과 부진한 경제지표 발표에 따른 추가 경기부양책기대감으로 1.19%가량 상승했다.

이번 주(16일~20일) 국내증시는 글로벌 정책공조 기대감과, 12월 금리인상우려가 공존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주에는 주요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G20정상회의(15~16일), APEC정상회의(18~19일), 아세안+3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21~22일) 등이 열린다. G20 정상회의에서는 구조개혁의 이행, 투자활성화, 포용적 성장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APEC 정상회의에서는 공동체성장방안, 아세안+3 및 동아시아회의에서는 북핵과 지역현안이 주요 의제로 선정됐다.

최근 각국의 정상회담을 통해 유럽, 중국, 신흥국의 정책공조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 정상회의의 잇따른 개최와 양자회담 가능성에 따라 이에 대한 기대감이 확장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다만, 국제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점에서 기대감 이상의 구체적 방안이 도출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10월 FOMC 회의록공개와 함께 12월 미 금리인상의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각국 정상회담에 따른 글로벌 공조 분위기 확대와 이머징 통화 안정화 등에 따라 12월 미 금리인상 가능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달러강세기조 또한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형주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KOSPI가 2000선을 밑돌았으나 연말 배당향 프로그램의 자금유입과 글로벌 정책공조와 기대감 등으로 지수가 추가로 급락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좁은 박스권 내 트레이딩 관점의 대응전략 유지가 필요해 보인다.

윤자중
〈NH투자증권 광주WMC센터장〉

내년 물가상승률 1%대... 디플레이 우려 완화

통계청 전망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대로 올라가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어느 정도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기가 눈에 띄게 호전돼서 아니라 '저유가 효과'가 사라져 나타나는 물가 상승인 만큼 저성장·저물가 흐름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소비자물가는 0.6% 올랐다. 남은 기간 물가 상승폭이 확대되더라도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에 그칠 것으로 한국은행은 전망하고 있다. 먼 물가상승률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금까지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의 0.8%가 최저치였다.

저유가와 경기 부진이 겹친 점이 올해 0%대 물가의 주된 원인이다. 연초부터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른 담뱃값이 올해 소비자물가를 0.58%포인트 끌어올렸지만, 유가 하락 효과가 이보다 훨씬 컸다.

올해 물가 전망의 핵심 역시 국제유가에 있다. 내년에는 소비자물가에서 유가 하락 효과가 사라진다는 게 1%대 물가 상승률 전망의 주된 근거다. 올해 1월 평균 유가는 배럴당 45.77달러(두바이유 기준)로 1년 전보다 56% 하락하며 물가상승률을 끌어내렸다.

그러나 내년 1월 유가가 지금처럼 40달러대 초중반 수준을 유지한다면 1년 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소비자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지 못한다.

연립뉴스

“텔레마케터 과장된 보험권유 피해보상 받는다”

금감원, 카드사 보험판매 점검

일부 보험판매 텔레마케터의 과장된 설명으로 알뜰결제에 보험에 가입했다가 중도해지로 피해를 본 계약자들에게 납입보험료를 모두 되돌려주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보험모집을 위탁한 10개 보험사를 상대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의 인수실태를 검사한 결과 보험사들이 부당하게 계약을 인수한 사실을 적발, 계약 중도 해지자에게 납입보험금을 모두 환급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하나SK, 현대, 롯데, 신한, KB국민, BC, 삼성 등 7개 카드사를 상대로 보험상품 전화판매(텔레마케팅) 실태를 검사하고 불완전판매 행위를 대거 적발해 해당사와 관련자에 대한 제재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카드사 보험대리점의 텔레마케팅 실태 검사에 이어 지난해 10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인수 실태를 점검했다.

2011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카드사 텔레마케터로 보험에 가입했다가 중도해지한 9만6753건의 계약을 조사한 결과, 보험사들이 판매대리점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형식적인 모니터링만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환급대상은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카드사 전화판매로 10개 보험사 상품에 가입한 계약자 중 상품을 중도해지(실효 포함)하고서 해지환급금만 돌려받은 9만6753건의 보험계약자이다.

보험사별로는 KB손해보험(옛 LIG손보)의 환급대상 계약 건수가 3만200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부화재(2만3000여건), 현대해상(1만7000여건), 삼성화재(1만여건) 순으로 많았다.

이어 흥국생명(4000여건), 메리츠화재(2000여건), 롯데손보·동양생명·동부생명(1000여건), 흥국화재(800건) 등의 순서로 환급대상 규모가 컸다.

연립뉴스



벌써 연말 분위기...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유신열)는 최근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시즌을 위해 백화점 1층 컬처스퀘어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했다. <광주신세계>

곡성, 전원주택

- 곡성군 입면 송전리 233-6번지
- 대지 72평, 건물 28평(실평)
- 1층 단독 주택, 2012년 준공
- 광주에서 30분 / 금호타이어에서 1분
- 6500만원

화순, 전원주택부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동면방향, 광덕교차로에서 5분
- 대지 328평, 33필지 중 1
- 기반시설 조성중(화순군청, 12월말 완공)
- 매매-1억6400만원(조정가)

수기동, 오피스텔

- 광주천 방향, 29평
- 16층, 주거겸 사무실, 전체수리
- 보5백만원에 월 35만원 임대중
- 대출 3000만원 가능
- 매매-5500만원

싸고 좋은 물건, 추천합니다!

주인직거래 H.010-6839-5900

해남, 전원주택

- 해남군 북평면 오산리 987-3번지
- 건물 28평(실평), 대지 53평(지분)
- 1층 단독주택, 2013년 10월 준공
- 2차선 도로접, 저운창고, 판매시설
- 매매-6500만원

금호리조트/회원권

- 법인, 등기제, 35평, 연 30박
- 분양가 3500만원
- 화순 / 제주 / 충무 / 설악
- 아산스파 / 금호패밀랜드 공유
- 매매 - 2500만원

금호동, 근린상가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 서광병원 4거리 코너, 구/7080자리
- 7층 701호, 120평, 전망최고, 4면유리
- 용 3억 6천만원, 모든업종 오픈 가능
- 매매 - 5억 6천만원

경매투자자

▶투자 하실 분! 공동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비법 배우실 분!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 등 1200만원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주)오천경매 H.010-3605-5000